# 교사들 체육수업 부담 던다

## 경남도교육청, 유치원·초교 스포츠 강사 111명 배치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정호)은 올해 초등학교 체육활성화를 위해 33명의 스포츠강사를 신규 선발했다. 이에 재계약 스포츠강사 78명을 포함한 총 111명을 3월 1일자로 10개월간 배치,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초등 스포츠강사 사업은 2008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9년도에 처음 운영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며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29일 결원, 증원으로 발생한 스포츠강사 충원을 위해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33명의 신규강사 최종 합격자가 선발됐으며, 이후 12학급 이상의 학교에 우선 배치한 후 희망 신청서를 받아 각 지역 교육청별로 인원을 배치·운영할 예정이다.

스포츠강사는 담임교사와 함께 협력수업(팀티칭) 형태로 주당 21시간 정도의 체육수업을 담당하며 정규수업 외에도 방과 후 체육활동, 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여름 방학 중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포츠강사 활용으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이 줄고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흥미를 갖고 참여해 학교체육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스포츠강사 대부분이 체육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 학생들과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현장의 스포츠강사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성인 hsi@eduyonhap.com

◆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외국어 수업을 하고 있다.

# "외국어 손쉽게 배워요"

## 전남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외국어수업 호응

"녹색은 중국어로 뤼쓰, 달라는 말은 게이워라고 했죠"

'게이워 뤼쓰' 중국인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유창한 중국어를 따라하는 어린이들. 해남군(군수 김충식)에서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옥천면 백호리 지역아동센터의 수업시간 풍경이다.

해남군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학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 수업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복지 바우처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주 4회, 매일 두 시간씩 원어민 교사에게서 영어와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

비용은 월 1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9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더해짐으로써 학습기반이 미비하고, 저소득층이 많은 농촌 어린이들의 실력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늘고 있는 농촌지역의 결혼 이주 외국인 여성 중 한국어와 외국어를 동시 사용할 수 있는 원어민을 선발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 1년에 걸친 장기적인 외국어 수업으로 올해는 경시대회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지역내 아동의 학습 증진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8개소에서 올해는 2개소를 추가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두성재단 프로젝트 사업단 관계자는 "학원을 다니기 어려운 농촌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호응이 대단하다"며 "아이들의 실력향상, 학교 성적 향상 등으로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 전남 해남군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 담당 061-530-5717

조만철 기자 jmc@eduyonhap.com

◆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은 청소년과학탐구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석교실을 운영했다.

# 고대 화석 보물찾기!

## 경남과학교육원, 흥미진진 화석교실 운영

경상남도과학교육원(원장 어윤수)은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청소년과학탐구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석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과학탐구반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지도교사로 구성된 과학동아리 중에서 선정된 팀으로 1월 28일, 29일에 실시된 화석교실을 시작으로 2월 19, 20일에는 천체교실, 3월 27일에는 생태교실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된 화석교실은 화석에 대한 호기심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문을 해결하는 한편,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과학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이끌었다.

28일 첫날 기본과정에는 '가진리 보물을 찾아서', '진품 화석 발굴 체험', '재미있는 화석 만들기' 등의 체험교육을 과학교육원의 화석문화재 전시관과 전시된 화석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29일에는 심화과정으로 중생대 복족류(연체동물), 스트로마톨라이트(원시적인 단세포 식물), 대형공룡발자국 등을 사천시 비토섬을 직접 답사하는 등의 체험교육으로 실시됐다.

성기홍 교육연수부장은 "가진리(경남과학교육원)에 있는 새들과 공룡의 보행열을 조사해 보면 재미있는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중생대 새들의 흔적이 그 종류와 양에 있어서 화석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의 무궁한 호기심을 돋울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상남도과학교육원 인근의 고성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룡발자국 화석지이며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지인 상족암군립공원이 자리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 부산시교육청 다채널 평가제 결과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지난 25일 2009학년도 교장·교감 다채널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공립유치원원장·원감, 공·사립 초중등학교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평가는 지난 2008년 7월 부산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해 관리자들의 학교경영능력 진단을 통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평가는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평가, 전문 평가단에 의한 학교경영능력 평가, 학력향상도 평가 등 평소 업무수행 결과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경영실적 중 학력 향상도 반영은 학력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평가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과 인사에 반영하고, 상위 3%와 하위 3% 해당자에 대하여 각각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해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행정을 실현시켜 갈 예정이다. 또 상위자 중 희망자 중심으로 교육여건 취약지역 학교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이에 해당하는 상위 3%에게는 연 1200만원의 특별연구비 지급과 함께 교직원에 대한 인사재량권을 대폭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결과는 평가 대상 전원에게 개인적으로 통보하여 자기 스스로를 진단토록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설문조사 대상을 학급당 10명으로 제한했던 부분을 학부모 전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충남도교육청, 지난해 이자수입 112억 8,400만원

지난해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이자수입이 당초 목표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액은 112억 8400만원으로 당초 목표치인 105억원보다 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전반적인 금리 인하와 '경제살리기 2009 예산 조기집행'으로 예산의 67% 이상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여서 도교육청의 자금관리가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올해도 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을 조기 확보함은 물론 자체 수입금의 적기 징수, 각종 부담금 적기 납부를 통한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농협과 제휴해 운영중인 충북교육사랑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절감, 이자수입 증대, 자체재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충북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 충남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료 지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2010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저소득층 자녀 23,000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 내외로 도내 전지역 초, 중, 고등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새터민 자녀 외에 다자녀 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유수강권제도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수강료를 지원해 학력신장을 통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참여 가능 프로그램은 초등 방과후학교 보육프로그램, 초·중·고등학교 특기적성 계발 프로그램, 교과 프로그램 등이고, 적용범위는 본교 및 타학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희망하는 강좌, 인근학교 간 연계·공동 운영 프로그램, 학교에서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강좌 등이다.

2010년에는 전년 대비 10억원을 증가시킨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대상자도 1세대 5째 자녀 이상은 무료로 지원하는 등 2,000여명을 확대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될 전망이다.

## 충북도교육청, 읍면단위 학교 지원

올해부터 읍·면지역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가 전액 지원된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은 금년부터 도농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읍·면지역에 소재한 82개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지원됐던 학교운영지원비는 향후 시 지역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직장인 자녀 및 장학금 수혜자를 제외한 14,460여명의 학생은 연간 8만원부터 18만원 정도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